

10/4/26

설교 제목: 용서받은 자의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8 장 15-35 절

###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눅 17:3)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길 잃은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를 존중하고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족한 자에 대한 권면과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권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여 죄를 지은 자가 있거든 먼저 일대일로 권고하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 형제가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 궁극적 범죄가 아니라, 신자 상호간의 도덕적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1 단계 작업으로, 죄를 진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형제를 죄에서 돌이켜 다시 참 형제가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권고를 할 때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여 형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2 단계 작업으로 교회에 알려 그 형제를 위해 연합된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교회 차원에서의 친교와 교류를 일절 금하고 범죄한 형제와 더이상의 접촉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때도 그 목적은 형제를 정죄하는데 있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라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또 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연합한 무리들을 향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영원히 임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현존성과 편재성, 그리고 무변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두 영혼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의 합심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당신이 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세 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곱 번 정도 용서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족하다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한없이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유를 '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중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종이 그 큰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이 엎드려 참고 기다려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임금은 불쌍하게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시 달란트는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동용되던 가장 큰 화폐 단위로, 1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일일 품삯인 1 데나리온의 약 6000 배에 상당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만 달란트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런 큰 빚을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백 데나리온의 빚은 크다면 큰 빚이지만 빚진 동료가 말한대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자신이 탕감받은 빚 만 달란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종은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며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만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갚겠다고 참아 달라고 애걸했으나 무시하고 냉혹하게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전에 임금에게 빚의 지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애걸했던 자신의 모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로 옥에 가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백 데나리온은 참고 기다려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들은 안타까운 나머지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모두 고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들은 임금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이라고 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었던 빚을 모두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었습니다.

이로써 악한 종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시다.

자신은 큰 은혜를 입어 엄청난 빛을 탕감 받았음에도, 같은 처지의 동료에게는 일말의 은혜도 베풀지 않았습시다.

자신의 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빛인데도 탕감해 주지 않고 가혹하게 그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시다.

주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종에게 분노합시다.

그리고 탕감해 주었던 빛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깁시다.

주인이 종에게 형벌을 내린 것은 종의 진 빛 때문이 아니었습시다.

그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아 큰 부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는 조그마한 은혜도 베풀지 않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였습시다.

큰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시다.

종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시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였을 경우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베풀지 않는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십시다.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빛을 진 죄인들이었습시다.

그 죄의 빛이 너무도 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습시다.

죽는 수 밖에 없었습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시어,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법정에서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며 살라고 하십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며 형제의 죄를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은혜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